

전장야협 경기도야학요구안 마련을 위한 회의 회의록

일시: 2010년 1월 6일

장소: 노들장애인야학

참여: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김기룡(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박준호(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간사), 이창균(에바다배움터, 전장야협 경기지부 (준) 집행국), 서명석(평택장애인야간학교), 신승우(새움장애인야학), 이동규(채움누리장애인야학), 유재경(경기교육공투본 준비위원장)

모이게 된 배경에 대해

박경석: 12월 경기도 교육청, 전장야협에서 요청해서 신승우 동지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차원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는데 바쁘셔서 이성대씨를 만났습니다. 만났고, 경기도 지역 장애인평생교육예산 반영해 달라 요청했었음. 그전에 250~500만원정도 정도 예산 얘기했었는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250만원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우리도 근거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고민했었다. 그쪽에서 문제제기 한 게 아무나 줄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들게 된 배경은 성인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단위들이 있는데 그런 단위들이 제도화 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제도화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근거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게 없습니다. 우리(경기도야학)은 현재 미인가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양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속 에서의 (장애인야학) 지원을 얘기했습니다.

2월에 추경이 있고, 1월 달에 일정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제출을 위해서 경기도지역에서 1월 7일날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가이드라인, 기준 정해서 검토한 후에 전체회의에 올려서 공유가 되면 요구하는 것입니다. 1월에 해야 2월에 추경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 까진 이성대씨가 하기로 했다.

이 안(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기준)은 예전 토론회 때 초안으로 나온 것인데, 전체 수련회 때도 이것 관련해서 토론했다. 간담회 때도 관심이 없었는데 실질적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잘 던져야한다. 첫 선례이다. 같이 설명을 하고 토론하고 질문 받고 했으면 좋겠고 경기(교육)공투본에서 오셨는데 경기도 투쟁 상황도 공유하기로합니다.

서명석: 질문 있는데요, 전장야협에서 이 안을 언제 만들었어요.

박경석: 이건, 작년 토론회, 국회 토론회 등에서 했고 총 3차례 정도 나왔습니다.

서명석: 그러면 조건부 시설(안)도 기준으로 제시된게 있나요?

김기룡: 아직 없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경석: 오늘 검토를 해서 공유되면 이 안을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서명석: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도 조건부 시설의 기준이 따로 제시되어 있는지요?

김기룡: 아직 없습니다. 안을 보고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룡: 9개 야학중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등록이 안되었으면 등록될 조건을 갖춘 곳은 어떻게 되는지요?

신승우: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예바다는 가능 합니다.

이동규: 새날도 가능합니다.

신승우: 이주상선생이 얘기해봤는데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김기룡: 등록이 가능한 곳이 두군데 정도 되는데, 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의 취지는 그냥 교육시키겠다고 지원하는게 아니라 교육지원을 쪽 해왔던 곳 중에 여건이 충족되고 인정되면 그 단체들에 대해서 노력을 고려하여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그 취지인데, 문제는 개인이 요청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좋고, 관련 단체들에서 그냥 장애인들만 있으면 지원받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장애성인교육지원체계를 만들어 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게 목표였습니다. 일정부문의 역량이 검증된 곳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등록 안 된 곳 많은데 등록을 유도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역도 문제가 되었는데 경남교육청에서는 2개 야학에 대해 3억을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장학관이 예산부서에서 3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불가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야겠는데 그 전장야협 논의안을 바탕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무자들은 감사에 걸리면 안되니,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교육청관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우리로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겠고, 우리의 운영이 현실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경남지역도 경기도에서 하는 데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서 고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좋겠고,, 원래는 도시규모, 교사, 학생, 역량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정확한 것은 학생수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고, 교육청입장에서도 학생 수에 따라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해 몇 월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정규고등학교의 경우 1인당 지원은 1년에 2400만원인데, 시설비등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반 학령기아동의 경우 특수학교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설비가 들어간다. 1인당 600만원 정도로 해서 기준예산을 정하고, 예산지원단가를 만들어내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들야학의 경우등을 봐서 1인당 지원단가를 산출해보니 기준의 운영비보다 조금 더 받는 형태인데, 다른 곳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한 경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미등록시설의 경우, 지원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법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다만 미등록 시설이 지금당장 등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 조건부 미인가시설 지원 했듯이 조건부로 시간을 두고 시설요건을 갖춘 후 등록하면, 등록된 기준에 맞춰서 받으면 되니깐, 시간을 주고 요건을 갖추고 지원받는 것 핵심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사무실을 구하고, 사람을 채용을 해서 여건을 갖추라는 거죠. 만약 등록을 못하면 다시 미인가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후죽순 생겨 나는 것을 차단하고 잘하는 곳은 더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시설에 대한 지원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돈을 지원받게 되면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몇 년 내에 등록하겠다는 계획서를 낸다던가 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내에서 협의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를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그쪽 전체 예산에 맞춰 협의를 해야 합니다. 시설비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굉장한 예산이 될 것 습니다. 신규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규예산으로 지원할것인지 일반평생교육예산에 추가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경: 시설비와 운영비를 나누었는데, 조건부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지원을 요구하였고 도시 규모에 따라 나누는 건 왜 그런것인지요?

김기룡: 지역에 따른 임대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두었습니다.

신승우: 안전지에 나온 금액의 단위는 얼마인 것인지?

김기룡: 단위는 모두 천원 단위입니다.

김기룡: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평택은 '나'형이고 수원은 '가'형이 될 것입니다.

유재경: 이걸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룡: 대략 전체방향이 이런 방향이고 구체적 액수는 다시 얘기해봐야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 동의하냐는 거죠. 동의되면 나머지 금액은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도 해봐야하고..

신승우: 현재 경기도에 아홉 개 야학이 있는데 수업이 진행 안되는 곳은 에바다, 오산, 화성정도입니다.

에바다: 저희는 학생이 1명있고 현재 교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룡: 학생들이 다 재학하고 있습니까? 수업 진행중인 곳은?

신승우: 새움,새날,평택,채움누리,동두천,수지는 수업하고 있고 예바다,오산,화성은 수업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김기룡: 3개야학은 재학생이 없어서안하고 있는지요?

신승우: 현재 오산은 (학생이)없고, 예바다는 휴업중입니다.

김기룡: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단순히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고 교육과정을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수업하고 진로에 대한 책임도 지는게 학교의 목표인데, 실천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노들야학에 대한 지원도 직접 하는걸 보고 장학사가 감동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밤에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 걸 보여줄 수 없다면 장학사도 의심 할 것 같습니다. 자구책 갖추려는 노력하는 기간에는 학생, 교사 조직과 교육과정 운영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승우: 경기교육공투본을 통해서 교육청과 얘기했는데 장학사가 9개 야학을 돌았습니다. 일단 학생이 없는데도 있고, 학생이 없는데도 이렇게 진행할것이라고 계획서를 썼을 때 사무관이 이정도는 보여줘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느냐 얘기했습니다. 일단 수업 하지 않는 3개 야학도 계획이나 지역 자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김기룡: 계획서를 쓰든 수업을 하든 자구적인 노력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에 경기지역에 지원하는 선례가 남겨지면 종교,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도 형평성 문제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산이 분산되고 교육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석: 구체적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승우: 등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서 '라'형은 삼천만원인 것입니까?

박경석: 시설 운영에 대한 임대료, 강사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통학비 등에 쓸 수 있도록 별도 규정마련을 제안하는 것인데, 하나씩 정리해봅시다. 등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명석: '라'형에서 기준학생수 최소한을 1명이 아니라 3명이상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명이면 이름을 학생도 되고 교사도 하는 편법을 쓸수도 있으니..

김기룡: 고등학교과정 학급당 최소 학생 정원 기준도 4명이니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석: 학급기준 4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 되었을 때의 문제인데 학생 수가

4명이면 좀 그럴 것 같네요.

김기룡: 경기도 가평 같은 곳은 인구가 작는데..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박경석: 4명 정도로 고려를 해봅시다. 고민을 해서 이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명석: 지역형평성을 고래하면 좋겠습니다.

김기룡: 이 안은 일단 학생 수만 고려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승우: 모든 요소를 다 고려할 수 있을지..

김기룡: 교사수, 지역등 모두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경석: 일단 제출해놓고 지역을 봐야하는거 아니냐고 나오면 가중치를 뒤서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칙은 학생수 비례해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는 원칙만 가지면 될 것 같고..

박경석: 등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은 이렇게 합시다. 다음으로 조건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합니다. 9개 야학을 얘기 하는 것 같고 신청서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온거죠? 지원하고 1년 이내에 등록을 꼭 하는것을 기준으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필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 제출하고 받았던 거 환수 하자는 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직접적으로 해야하는 문제 라서 기한을 1년으로 할건지 2년으로 할건지 등등

서명석: 근린생활시설 변경이 애매해서 힘든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승우: 현재 몇몇 곳이 상가건물에서 하는데 그건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 우리가 등록기준을 바꾸자는 문제가 아니니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기준을 맞춰야지. 우리가 그 조건을 만들지 않고 얘기하면 지원 받을 근거가 없는것..

김기룡: 상가안에 학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기준이 정해졌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건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기준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석: 상가건물에 있는 동안이라도 지원받게 되면 1억5천내에서 이사를 해서 시설기준을 만들고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명석: 1년이 아니라 더 연장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룡: 저는 더 줄였으면 한다. 2011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예산을 받아서 6월에 등록하고 9월에 예산 짤 때 2011년도 예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끌어버리면 2012년도로 넘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옳기면 돈에 맞춰서 옳기면 되고, 교재 사서 비축하고. 이런건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규: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필요한지?

김기룡: 평생교육사 한명 필요 합니다.

박경석: 그건 실무적인 문제라서 등록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간사와 함께 논의합시다. 그게 힘들 것 같다고 조건을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이니깐

김기룡: 구해보고 정 안되면, 직접 자격증을 따는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경: 이게 확정되는게 2월 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산해보면 8개월입니다. 10월달 안에 등록하는 곳은 등록 하고, 안 되는 곳은 사유서 쓰고 연장하고. 어차피 이렇게 하시기로 한 게 있으니깐 하려면 늦출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 예산을 받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석: 교육감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문제도 있어서.. 8개월 정도 안에 맞추고 이런 조건은 짧게 할수록 협상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임대료는 실제로 돈 달라는 액수인데, 새움야학 같은 경우는 1억5천만원 요구하는 것인데 의정부는 5만이 안되니 5천만원이고.. (조건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시설비지원기준에서) 경기도 지역 중 '가'형에 속하는 곳은 어디 어디가 있는지요?

신승우: 수원에 두 곳, 용인에 한 곳 있구요. '나'형에 속하는 곳은 평택에 두 곳, 화성에 한 곳, 동두천에 한 곳, 오산에 한 곳 있습니다. '다'형에 속하는 곳은 의정부 한 곳 있습니다.

박경석: 계산하면 9억입니다. 이게 확정되면 9억을 요구하는 것인데. 250만원 주려다가 9억 얘기 하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규모기준에 따른 예산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기룡: 의정부는 인구가 4만명 이네요. 좀 아쉬운..

신승우: 교육청 평생교육과 가서 얘기하면 다 앓는 소리합니다. 경기도청에서 예산이 다 깎였다고 앓는 소리한다.

박경석: 우리기준을 마련해서.. 다 받으면 고맙고, 안되면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 만드는 것이니, 만약 교육청에서 프로그램비정도로 고민한다면.. 프로그램비 많이(천만원씩) 받아서 9천만원이 총액이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승우: 프로그램비 준다면 등록기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박경석: 하기에 따라, 프로그램비 쓰는 걸 증명만 하면 되니깐.. 평생교육시설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경: 몰라서 여쭙고자 하는데...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기준은 왜 도시규모가 아니라 학생수로 고려하는 건가요?

김기룡: 시설에 따라 임대료 쓰라고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유재경: 분리하면 안되나요? 임대료랑 운영비를.

김기룡: 교육청에서 이게 안되기 때문이에요.. 사업비를 주면 알아서 쓰라는 거죠. 협의해서 기준만 되면, 예를 들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을 쓰던지... 시설설비를 확충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특수학교에 시설비 건축비등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장애인생활시설 양성화하면서 지원해준게 있고요.

박경석: 이건 시설비이고, 미인가 평생교육시설지원기준 보면 학생 수로 되어있는데 이건 등록되기 전의 기준입니다. 미인가 기준으로 보면 평택장애인야학은 600만원 지운 받는 것이죠

김기룡: 이건 기존의 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에서 조금 플러스된 정도 금액입니다. 일단 등록이 되면 많이 주고 등록이 안되면 작게 주는 기준인 거죠. 차등을 뒀서 계속 등록을 유도해야할 것 같습니다.

서명석: 이건(미인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 한명이어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유재경: 이건(미인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인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써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8개월 내에 맞추어서 등록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승우: 저희는 한달에 200만원정도 예산을 씁니다. 교사수 12명에 학생수 20명이고. 근데 저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장애인이 10명 있고 비장애인 학생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박경석: 장애인학생수만 고려하는걸로 정해서 합시다.

박경석: 미인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으로 봤을 때 라형은 6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합의할 수 있습니까. 좀 작지 않은지요?

유재경: 미인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기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석: 신청서 작성하면서 가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기룡: 신청한 액수를 고려해서 지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석: 9억을 날렸을 경우(조건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를 말함) 운영비를 프로그램지원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확보해야하지 않을까요.

김기룡: 운영비는 고려하지 않고 시설지원을 얘기하다가, 안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신청한 액수 고려해서 논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석: 협상대표들이 던지고 예산논의 하면서 확보 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유재경: 예전에 교육청과 협의하였을 때 우리와 얘기한 건 3번째 지원기준 이었습니다(미인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기준을 말함). 운영하는 곳은 지원하자는 것이었는데... 1,2,3안으로 하는 안을 교육청 제시했을 때 교육청의 입장은 1,2안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전장야협에서 12월에 이성대를 만나서 얘기한게 진척된게 있는거라 보이는데, 저희가 얘기 했을 때는 교육청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3번째 안에서 지원을 좀 올려놓고 차등적으로 올려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박경석: 지금 평생교육시설지원은 구에서 주는 비용만 해도 250정도 주는데.. 3안 기준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신승우: 운영비는 운영비이고.. 교육청에서 장애인야학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등록 유도할 생각이 있고 교육문제 풀 의지가 있다면 “1년 이내에 등록하겠다” 이 부분은 꼭 해야할것 같습니다.

김기룡: 사례가 없기도 하고, 추경으로 10억 예산 편성 할 수 있느냐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승우: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지원비 정도를 얘기하는 건 장애인교육을 경기도에서 풀지 않겠다는 말인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성인장애인야학문제를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게 중요 할 것 같습니다.

박경석: 안을 제출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좋고 안되면 원칙적으로는 투쟁하는 건데 우리가 싸우든 안 싸우든 추경이 설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2월이 넘어가면 추경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하는 실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협상에서 원칙을 정리해놓고 어느 한쪽을 협상을 해서라도 확보하는게 필요한 건지..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식으로라도 협상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건데. 제 생각에는 2번안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안되면 프로그램비에서 지원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룡: 전체총예산으로 제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석: 3안이면 프로그램 공고를 하게되는 형태가 될 수 도 있고..

김기룡: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승우: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다 지원 해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장애인야학협의체에 가입된 야학은 지원해주겠다고 했었고요.

박경석: 이 기준을 우리 내에서 해서 던질 수는 있는데 나는 2번안 정도로 아름답게만 지켜주면야..

유재경: 예를들면 우리(경기교육공투본과)와 지난 1년간 성인장애인야학동지들과의 요구가 원래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려서 밀려서 3번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많아야 2,3군데만.. 지금은 많이 바뀐 게 사업계획이나 진행된걸 바탕으로 운영비 기준을 하는건데, 그때는 250만원 2개 야학 지원이었습니다.

박경석: 이게 기준이 되면 전체회의에서 되면 같이 들어가서 만나 얘기해봅시다. 협상권한은 설명을 잘해서 위임을 받아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승우: 빨리 만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재경: 김상곤 교육감 선거운동들어가기 전에 협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기간이 되면 애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공투본 내에 성인장애인야학동지들도 투쟁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문제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공립유치원 비정규직도 임시강사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기간제처럼 하는게 아니라 투쟁해서 쫓리는 건 막았고 법률검토단을 꾸렸습니다. 상시근로를 가져갈 수 있는 법률적 검토를. 그 싸움도 2월달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성인장애인야학투쟁도 2월안에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석: 같이 싸우고 있는데 조정을 해야하는 문제 아닌지요.

유재: 그건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면서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임시강사선생님들이들이 조금 빨랐습니다. 오늘 임시강사 총회하고 내일 만나서 협의하고 법률안 자문 들어가는데 1월 18일까지 결과통보받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협상국면.. 투쟁도 같이 해나가야... 공투본에서는 세부요구안을 모아서 교육청에 내려고합니다. 총요구안 모아서 공투본에서 하고. 같이하는 건 소속단체와 함께 또 하고.

김기룡: 전교조 들어갔나요?

유재..“ : 전교조 절대 안들어오죠. 내부사정이 좀..

박경석: 제출한 안에 대해서 동지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걸 우리 내에서 기준안이지 여기 협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질문있으면..

김기룡: 신청서는 야학에서 만든것인가요? 신청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식이 문제라기 보다는 합리적 기준을, 얼마를 요구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경석: 합의가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금 중요한건 큰틀 합의인 것 같습니다.

신승우: 경기도야학 특징이 II센터에서 하는거라 학생확보가 되는데 학생들이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역세권 근린상가지역 아니면.. 곤란합니다 . 저의가 처음 논의한 것이 경기도 특성상, 방문교육, 차량유지 등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기룡: 방문교육은 지양했으면 좋겠고. 특수교육에 순회교육이 있는데 그걸 분리교육환경으로.. 통합교육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일부야학에서 (방문교육) 하시는데요. 왜 야학에서 같이 공부하는지에 대한 큰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야학을 오기 위해선 그것에 필요한 통학차량요구. 학생들의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 모셔오는, 이걸 요청할 수 있을것같고..

박경석: 통학지원 별도 요구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룡: 미인가 시설로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등록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연구용역 의뢰한게 있는데 지원방안연구, 거기서도 합리적 방향이 나오겠죠. 그 연구도 등록된 시설을 지원하는데 핵심입니다. 관권은 빨리 등록하는게..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큰 원칙을 제시를 하고.. 운영비 수준은 예전에 사례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3000만원 프로그램비로 그냥지원한적 있고요. 전국에 3개 야학. 3천만원씩. 그 사례를 들면서 3000만원씩 달라고 할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걸로 운영하셔야죠..

유재경: 1,2번 안은 교육청에서 절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도청에서 경상비 지원을 하면 나머지 지원을 250만원 고려해 보겠다고 한거죠..

김기룡: 다른 지역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니까..

신승우: 등록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못해준다는 입장입니다.

박경석: 등록은 해야하는 것이고 시설비지원이 안될 경우 일관3000만원으로 하는것도 안... 7일날 전장연 LT있는데 박준호동지 가서 회의하고 그다음주에 약속잡아서 협상하는걸로 하면 될까요?

박경석: 협상과정에서는 박경석, 김기룡 둘중 한분하고 경기도에서는 누가 들어갈지를 1,2

명정도 해서 같이 참여하고. 포괄적 위임받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신승우: 오늘 (메일로) 소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